

勞 動 經 濟 論 集
第27卷(1), 2004. 4, pp. 135~164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관한 연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성 립**

본 연구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 상태가 불안정한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노동, 미취업 여성, 의중임금, 시장임금, 미취업 원인

투고일: 2004년 3월 4일, 심사일: 2004년 3월 5일, 심사완료일 :2004년 4월 19일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2-C00148)
2004년 2월 제5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토론자와 참석자,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sllee@uou2.ulsan.ac.kr)

I. 서론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현재 52.6%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59.3%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OECD, 2002). 노동부 중기고용기본계획이 끝나는 2008년에 예상되는 15~60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6%로서(노동부, 2003) 고려하는 연령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현행의 추세라면 우리나라 여성인력 활용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2020년경부터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성장잠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노동부, 2003).

여성노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가치(의중임금, reservation wage)가 시장노동시간의 가치(market wage)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과 여성의 낮은 지위와 연관된 문제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이 저학력, 단순직 중심으로 발달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취업자의 대다수가 저기능·저숙련 직무에 종사하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 조립직, 단순근로 등의 저생산·저임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학력자일수록 전문직이나 고임금·고숙련직을 선호한다고 할 때 직종 분포상 이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고학력 여성일수록 실망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미취업은 자녀양육 등 가사 일에 보내는 시간이 시장노동에 보내는 시간보다 효용이 클 때 시간 사용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자발적인 미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시장노동의 가치가 가사나 육아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보다 크지만 차별적 고용관행이나 관리 및 전문직 등 고학력·고임금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한다던가, 또는 다른 이유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은 비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취업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는

여성과 함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미취업자의 이러한 차이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미취업이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인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지만 미취업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등 여성 노동시장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면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시키는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여성인력 활용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약 과반수의 여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취업하지 않는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취업 여성을 미취업 원인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미취업 유형별로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미취업 여성을 미취업이 가계생산성이 높은 데 기인한 본래적인 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인 파생적인지, 그리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없는지의 기준에 따라 네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미취업 현상을 조명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여성인력 활용정책으로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여성 노동력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논의의 출발은 시장노동과 가사일, 여가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선택이론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노동공급이론). 시간 배분에 관한 고전적인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시장재화와 가계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비재를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고 가정한다(Becker, 1965; Abbot · Ashenfelter, 1976; Killingsworth · Heckman, 1986). 시장상품은 일을 함으로써(시장노동에 시간을 투입한 결과) 얻는 소득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가계생산은 이러한 시장상품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형태(소비재라고 하기로 하고, 여가도 넓은 의미의 소비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계생산에는 시장상품(시장노동시간) 이외에 시간(가계생산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은 일정한 시간 제약과 가계생산의 제약, 그리고 시장노동을 통하여 벌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한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장재화 즉, 시장노동시간과 가계생산시간을 선택한다. 오늘날에는 가계생산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업화되어서 소비재의 생산에 시장상품과 가계생산시간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시장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의 수요에 해당하고 시장노동시간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시장노동시간의 가치는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이나 보수로 측정된다. 가계생산시간의 가치는 의증임금(reservation wag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증임금은 시장노동시간이 0시간일 때 시장재화와 가계생산시간의 한계대체율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시장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시장임금)와 가계생산시간의 가치(의증임금)를 비교하였을 때 시장노동시간의 가치가 가계생산시간의 가치보다 크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어린 자녀나 환자가 있다면 집안에서 이들을 돌보는 가계생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시장재화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계생산시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인 이외의 다른 가족원의 소득, 자산, 또는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가능한 시장재화의 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여 가계생산의 가치가 커지고 수요가 증가한다(소득효과). 시장노동의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생산시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시장노동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가계생산시간을 시장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Blau · Ferber, 1992).

2. 의증임금과 시장임금 추정 회귀모형

여성의 의증임금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의증임금에 관한 실증적인 추정은 실업자의 직업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Kiefer · Neumann, 1979; 어수봉, 1994; 금재호, 1997; 류재술 · 류기철, 2002). 여기서 의증임금은 직업탐색의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임금수준(Kiefer · Neumann, 1979)으로서 실업상태의 개별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내면적인 임금(류재술 · 류기철, 2002)이며 따라서 의증임금은 개인의 실

현가능한 임금 분포(offered wage)에 따라 달라진다.

실증적으로 의중임금을 이전 직장의 임금, 연령, 학력, 자격증 유무, 훈련, 실업기간 등의 노동력 특성과 타가구원의 소득 유무 등의 변수를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 의중임금에 관한 국내의 주요 연구에서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을 토대로 의중임금 회귀식을 추정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어수봉(1994)의 연구에서 의중임금에 대해 이전 직장의 임금소득, 연령,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재호(1997)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취업 여부, 희망직장 형태가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의중임금을 구분하여 추정한 최근의 연구—류재술 외(2002)—에서 의중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설명변수가 남자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전 직장 임금소득, 실업기간, 이전 직장 임금소득이, 여자의 경우는 이전 직장 임금소득, 연령, 학력, 자격증 유무로 나타나, 남녀간 의중임금 결정 메커니즘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 있다.

자녀양육과 가사책임을 가진 여성의 의중임금을 추정하는 데에는 취업 가능성과 취업된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 이외에 가계생산과 관련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계경제학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행해졌다. 이들 연구에서 가사노동시간의 가치(의중임금)는 본인의 학력, 비근로소득, 다른 가계구성원의 소득(특히 남편의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부인의 가사노동 대체 여부와 관련되고, 시장노동시간의 가치는 학력, 연령, 노동경력 등의 요인과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문숙재·김순미·윤소영, 1996; 김순미·김혜연, 1998; 김혜연, 2000; 김지경·조유현, 2001; 김지경, 2003).

3.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실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1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 가량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로 25~34세 연령층에서 급락하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에서 다시 정점에 달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강식·정진화, 1999) 199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고찰한 금재호(2000)는 결혼 이후에도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원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였

다. 다른 한편 1998년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김우영(2003)은 최근 세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 여성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 직후 직업을 그만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추이에 대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현행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은 남녀간 직종 분리, 비정규직화, 경력단절로 요약된다. 여성은 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조립직, 단순근로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낮다(최강식·정진화, 1997; 금재호, 2000; 황수경, 2002; 김종숙·박수미, 2003). 더구나 여성비가 높은 직종들은 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고 직종내 임금 편차도 적게 나타나며, 여성 직종에서 근로자들의 교육, 경력, 근속연수도 남성 직종 근로자들보다 짧아 인적자본 측면에서도 열등한 구조를 보인다(황수경, 2002). 종사상 지위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비임금근로자 특히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금재호, 2000; 장지연·호정화, 2001; 황수경, 2002; 김종숙·박수미, 2003).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상당수가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기 때문이다(금재호, 2000; 김종숙·박수미, 2003). 여성 미취업자의 실업탈출을 분석한 장지연·호정화(2001)는 여성의 구직활동은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후 취업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아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이 남성과 여성에게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황수경(2003)은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유희화율을 고찰함으로써 여성 유희인력 풀의 규모 파악을 시도하였다.

여성노동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여성노동의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른 문제점은 경력단절이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차별, 불확실한 미래와 경력개발의 한계, 결혼, 육아 등의 사유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러한 경력단절이 고임금·고속연·고기능 직종에의 여성 진출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지경, 2002; 박수미, 2002; 김혜연, 2000; 금재호, 2000; 최강식 외, 1997; 방하남, 1996; 문숙재 외, 1996; 조정문, 1994; 김우영, 2003; 김종숙·박수미, 2003).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취업한 여성노동의 노동생산성이 대체로 낮고 경력단절 및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취업이 불안정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취업의 불안정성은 미취업

상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미취업자 가운데 특히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여성 유휴인력(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이 존재하기도 하고, 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지만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인 미취업자와 취업할 의사를 갖지 않은 안정적인 미취업 여성도 혼재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차부터 5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 과정, 소득과 소비의 상태와 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199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총 5,000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2002년까지 5차에 걸친 조사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미취업자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자를 포함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모든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미취업의 명백한 원인이 되는 학업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에서 학업을 마

〈표 1〉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추이

(단위: %)

| | 경제활동 참여율 | 취업자 비율 | 구직자 비율 |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 구직단념자 ¹⁾ 비율 | 미취업자 ²⁾ 비율 |
|------|-------------|-----------|-----------|----------------|---------------------------|--------------------------|
| 1998 | 47.06 | 44.39 | 2.67 | 52.94 | - | 55.61 |
| 1999 | 47.61 | 45.18 | 2.43 | 52.38 | - | 54.81 |
| 2000 | 48.59 | 46.98 | 1.61 | 51.41 | 0.40 | 53.01 |
| 2001 | 49.48 | 47.67 | 1.51 | 50.82 | 0.26 | 52.32 |
| 2002 | 49.71 | 48.45 | 1.27 | 50.29 | 0.14 | 51.56 |

주: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 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2) 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20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학생 제외)의 노동시장참여 상태

(단위: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여성 전체 | 6,948 (100) | 6,233(100) | 5,791(100) | 5,951(100) | 5,673(100) |
| 20~45세 여성 | 3,526(50.75) | 3,079(49.40) | 2,781(48.02) | 2,665(44.78) | 2,515(44.33) |
| 취업자 | 1,664(47.19) | 1,594(51.77) | 1,449(52.10) | 1,439(54.00) | 1,420(56.46) |
| 미취업자 | 1,682(52.81) | 1,485(48.23) | 1,332(47.90) | 1,226(46.00) | 1,095(43.54) |

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였다. 또한 개인 및 가계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상태의 변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취업 및 미취업의 노동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45세 이후 연령대 여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시장 진입, 탈퇴, 재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0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도별 조사에 포함된 분석 대상 표본 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여성 표본 가운데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 표본 수와 비중은 조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서 1998년에 전체 노동패널조사 대상 여성의 51%에서 2002년 44%의 범위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은 1998년 약 47%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이후부터 그 비중이 증가하여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2002년 현재 취업자는 약 56%, 미취업자는 44%로 나타났다.

1. 미취업 여성의 시장임금 추정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시장임금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임금이 관찰되는 취업자의 임금자료를 통하여 임금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미취업자가 취업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시장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임금회귀식은 Heckman의 2단계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패널자료를 사용하면 분석에 많은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고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인적인 특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통제되어 미취업자 임금추정에 사용될 추정회귀계수의 정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금회귀식의 추정에 1999년 2차 조사자료부터 2002년의 5차 조사자료의 4년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¹⁾

1) 1998년 1차 조사에서는 자격증 유무 등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서 분석자료에서 제외한다.

설명변수에 학력과 전공, 가구원 수 등 시간에 따른 변동이 거의 없는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고, 다수의 개인 횡단자료에 대한 최대 4년 동안의 종단자료를 담고 있는 자료상의 특성을 고려하며, 또한 추정 결과를 모형추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미취업자의 임금을 추정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패널자료 분석방법으로 Random effect 모형이 Fixed effect 모형에 비하여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을 개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α_i), 시간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부분(u_t)과 임의로 차이 나는 부분-랜덤 오차항(ε_{it})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Two-factor 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Two-factor 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조사 시점의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u_t 항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절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의증임금의 추정에 199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도가 다른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영향이 통제된 추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귀모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추정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은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업 여부에 대한 패널자료의 랜덤효과 모형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_{it}^* = \gamma' w_{it} + u_{it}, \quad u_{it} = d_i + q_{it}, \quad (1)$$

z_{it}^* :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z_{it} = 1$ (취업) if $z_{it}^* > 0$, $z_{it} = 0$ (미취업) if $z_{it}^* \leq 0$

w_{it} : 상수항을 포함한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

u_{it} : 오차항. 오차항은 다시 i 번째 개인의 그룹 오차항(d_i)과 랜덤오차항(q_{it})으로 분리함.

식 (1)의 회귀모형을 프로빗 랜덤효과 분석방법으로 추정하여 임금에 관한 표본선택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표본선택항($\lambda_{it} = \phi(\gamma' w_{it} / \sigma_u) / \Phi(\gamma' w_{it} / \sigma_u)$)-inverse Mill's ratio를 산출하였다. 임금회귀모형에 표본선택항(람다, λ_{it})를 추가하여 취업자로부터 관찰되는 임금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임금회귀식을 추정하였다.

$$\log(y_{it}) = a + B'x_{it} + B'\lambda_{it} + c_i + u_t + \varepsilon_{it} \quad (2)$$

y_{it} : i 번째 취업자의 t 년도 임금

x_{it} : i 번째 취업자의 t 년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벡터

λ_{it} : i 번째 취업자의 t 년도 sample selection correction 항

c_i : 개인오차항

u_t : 시간오차항

ε_{it} : 랜덤오차항

시장임금의 추정을 위한 종속변수로 월평균 임금 및 보수를 사용하였다. 시간당 임금을 통하여 시장임금을 추정하지 않고 월평균 임금 및 보수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임금 추정의 목적이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추정하고 이 두 임금을 비교하는 것인데, 미취업 구직자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중임금으로서 월평균 희망임금을 조사하고 희망근로시간을 전일제와 시간제의 이분적인 변수로 측정하고 있어서 시장임금도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 대한 평균 수준으로 추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 대하여 추정한 두 가지 임금수준의 비교 단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임금추정의 설명변수로는 학력 및 전공, 연령,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여부, 취업연수,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거주지역 변수를 포함하였다.

임금회귀모형이 추정되면 미취업자의 시장임금은 추정회귀식에 미취업자의 개인 및 가계특성을 대입하여 산출한다.

$$\text{미취업자 임금} = \exp(\alpha + B'x_{it} + B'\lambda_{it}); \quad (\text{회귀계수})^{\wedge} : \text{추정회귀계수}$$

취업 여부 및 임금회귀식에 포함된 표본의 독립변수에 관한 사항은 <표 3>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²⁾

2.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 추정

구직중이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이 밝힌 의중임금을 토대로 의중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새로운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2)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결측치가 있거나 응답이 잘못된 사례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어서 표본 수가 앞 절의 <표 2>에 나타난 표본 수와 차이가 난다.

〈표 3〉 시장임금 추정표본 특성: 평균(SD)

| | | (단위: %) | | | |
|----------------------|-------------|----------------|----------------|----------------|----------------|
| | | 1999 | 2000 | 2001 | 2002 |
| 표 본 수 | | 2,966 | 2,688 | 2,560 | 2,448 |
| 취업자 | | 1,546(52.12) | 1,382(51.41) | 1,348(52.66) | 1,293(52.82) |
| 연 령 | | 33.28(7.06) | 33.20(7.16) | 33.17(7.13) | 33.09(7.05) |
| 학 령 | 중학교 미만 | 637(21.48) | 524(19.49) | 459(17.93) | 364(14.87) |
| | 고등학교 이하 | 1,572(53.00) | 1,429(53.16) | 1,316(51.41) | 1,232(50.33) |
| | 전문대 | 299(10.08) | 319(11.87) | 357(13.95) | 380(15.52) |
| | 대학교 이상 | 458(15.44) | 416(15.48) | 428(16.72) | 472(19.28) |
| 전 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 인문과학 | 261(34.48) | 230(31.68) | 249(32.09) | 245(32.07) |
| | 사회과학 | 106(14.00) | 125(17.22) | 109(14.05) | 110(14.40) |
| | 이공계열 | 123(16.25) | 126(17.36) | 179(23.07) | 171(22.38) |
| | 의학계열 | 124(16.38) | 109(15.01) | 119(15.34) | 126(16.49) |
| | 예체능계열 | 61(8.06) | 60(8.26) | 61(7.86) | 54(7.07) |
| | 교육계열 | 82(10.83) | 76(10.47) | 59(7.60) | 58(7.59) |
| 결혼상태 | 미혼자 | 633(21.34) | 627(23.33) | 600(23.44) | 608(24.84) |
| | 기혼 유배우자 | 2,238(75.46) | 1,974(73.44) | 1,896(74.06) | 1,760(71.90) |
| | 기혼 무배우자 | 95(3.20) | 87(3.24) | 64(2.50) | 80(3.27) |
| 가족상황 | 가구원 수 | 4.14(1.16) | 4.03(1.11) | 4.07(1.14) | 3.92(1.12) |
| |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 966(32.57) | 809(30.10) | 711(27.77) | 638(26.06) |
| | 초등학생 자녀 있음 | 907(30.58) | 832(30.95) | 771(30.12) | 725(29.62) |
| | 6세 미만 자녀 있음 | 903(30.45) | 751(27.94) | 775(30.27) | 715(29.21) |
| | (조)부모/모친 동거 | 283(9.54) | 236(8.78) | 223(8.71) | 187(7.64) |
| 가족소득 (단위:만원) | 가계소득 | 161.69(118.41) | 175.55(117.02) | 197.07(156.31) | 238.49(193.67) |
| | 본인소득 제외 | 127.08(113.77) | 137.61(116.28) | 149.26(154.14) | 181.68(185.33) |
| 거주지역 | 서울 | 802(27.04) | 688(25.60) | 611(23.87) | 578(23.61) |
| | 경기 | 905(30.51) | 856(31.85) | 822(32.11) | 799(32.64) |
| | 광역시 | 596(20.09) | 528(19.64) | 512(20.00) | 480(19.61) |
| | 지방도시 및 군부 | 663(22.35) | 616(22.92) | 615(24.02) | 591(24.14) |
| 직업훈련 자격증 | 받음 | 411(13.86) | 407(15.14) | 472(18.44) | 524(21.41) |
| | 있음 | 660(22.25) | 582(21.65) | 585(22.85) | 589(24.06) |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의증임금으로 하였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이러한 의증임금에 관한 질문은 1차 조사에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2차 조사부터는 구직자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서 1차 조사에서 의증임금을 보고한 미취업자는 전체 미취업자의 25%, 2차 조사에서는 4.25%에 그치고 있고 이후부터는 더욱 줄어서 2002년 현재 20세 이상 45세 미만 비학생 여성 미취업자 가운데 의증임금을 나타낸 미취업자는 71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자의 3%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미취업자의 의증임금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증임금 추정자료로는 조사자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8년의 1차 조사 자료를 사

용하였다. 의중임금에 관한 자료가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에 국한하여 존재하므로 추정방법도 시장임금을 추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 표본선택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에 대한 프로빗 분석을 하여 의중임금 회귀분석에 사용할 표본선택항(inverse Mill's ratio)을 산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의중임금이 조사된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의 의중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의중임금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를 적용하여 의중임금이 조사되지 않은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의 기댓값을 산출하여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프로빗 분석에서는 구직을 하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을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 이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표본선택 의중임금 회귀분석에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의중임금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노동공급이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의중임금은 가계생산과 관련된 요인, 취업 가능성, 그리고 취업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력과 전공, 연령, 이전 직장의 취업 사항 등을 포함한 노동력 특성과, 가계 소득과 남성 가장의 특성 등의 가계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결혼상태, 가구원 수, 중·고등학생 자녀 유무, 초등학생 자녀 유무, 6세 미만 자녀 유무, 조모나 모친과 동거할 경우

<표 4> 시장임금 추정 표본 특성: 취업자 특성; 평균(SD)

(단위: %)

| | | 1999 | 2000 | 2001 | 2002 |
|-----------|-------------|-------------|-------------|-------------|-------------|
|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195(12.68) | 140(10.32) | 149(11.10) | 143(11.11)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151(9.82) | 181(13.34) | 180(13.41) | 221(17.17) |
| | 사무직 | 260(16.91) | 259(19.09) | 272(20.27) | 275(21.37) |
| | 판매 및 서비스직 | 496(32.25) | 397(29.26) | 392(29.21) | 355(27.58) |
| | 기능 및 노무직 | 436(28.35) | 380(28.00) | 349(26.01) | 293(22.77) |
| 종사상 지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778(50.82) | 781(57.55) | 810(60.36) | 888(69.00) |
|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288(18.81) | 246(18.13) | 200(14.90) | 217(16.86)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64(4.18) | 49(3.61) | 58(4.32) | 61(4.74) |
| |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164(10.71) | 137(10.10) | 129(9.61) | 120(9.32) |
| | 무급가족종사자 | 237(15.48) | 144(10.61) | 145(10.80) | 1(0.08) |
| 경력연수 | 년 | 5.56(4.97) | 5.99(4.79) | 6.45(4.70) | 5.89(4.17) |
| 근로시간 | 시간제 | 1285(83.55) | 194(14.30) | 188(14.01) | 161(12.51) |
| | 전일제 | 253(16.45) | 1163(85.70) | 1154(85.99) | 1126(87.49) |
| 직업훈련 | 받음 | 223(14.50) | 225(16.58) | 310(23.10) | 352(27.35) |
| 자격증 | 있음 | 375(24.38) | 320(23.58) | 337(25.11) | 344(26.73) |

〈표 5〉 의중임금 추정 표본 특성: 평균(SD)

(단위: %)

| | | 전 체 |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 | |
|------------------|-----------------|--------------------|---------------------|--------------------|----------------|
| 의중임금-평균(표준편차) | | 82.08 (48.21) | 82.08 (48.21) | 0.00 (0.00) | |
| 개인특성 | | 연령-평균(표준편차) | 38.85 (10.54) | 37.36(10.17) | 40.02 (10.68) |
| 학 력 | 중학교 이하 | 663 (33.30) | 277 (31.77) | 386 (34.50) | |
| | 고등학교 이하 | 957 (48.07) | 418 (47.94) | 539 (48.17) | |
| | 전문대 | 142 (7.13) | 82 (9.40) | 60 (5.36) | |
| | 대학교 이상 | 229 (11.50) | 95 (10.89) | 134 (11.97) | |
| 전 공 | 인문과학 | 127 (34.23) | 54 (30.17) | 73 (38.02) | |
| | 사회과학 | 69 (18.60) | 40 (22.35) | 29(15.10) | |
| | 이공계열 | 55 (14.82) | 24 (13.41) | 31 (16.15) | |
| | 의학계열 | 67 (18.06) | 30 (16.76) | 37 (19.27) | |
| | 예체능 및 기타 계열 | 21 (5.66) | 13 (7.26) | 8 (4.17) | |
| | 교육계열 | 31 (8.63) | 18 (10.06) | 14 (7.29) | |
| 결혼상태 | 미혼자 | 191 (9.59) | 143 (16.40) | 48 (4.29) | |
| | 기혼 유배우자 | 1684 (84.58) | 669 (76.72) | 1015 (90.71) | |
| | 기혼 무배우자 | 116 (5.83) | 60 (6.88) | 56 (5.00) | |
| 가족상황 | 가구원 수-평균(표준편차) | 3.96 (1.16) | 3.98 (1.16) | 3.96 (1.16) | |
| | 6세 미만 자녀 있음 | 626 (31.44) | 205 (23.51) | 421 (37.62) | |
| | 초등학생 자녀 있음 | 485 (24.36) | 226 (25.92) | 259 (23.15) | |
| |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 469 (23.56) | 250 (28.67) | 219 (19.57) | |
| | (조)부모 -(조)모친 동거 | 180 (9.04) | 86 (8.20) | 104 (9.29) | |
| 가계의 경제적 자 원 (만원) | 가계소득-평균(표준편차) | 172.09 (462.26) | 162.34 (485.62) | 179.70 (443.27) | |
| | 주택 가치-평균(표준편차) | 6,460.69 (7647.20) | 5,888.71 (6503.64) | 6,906.41 (8407.44) | |
| | 부채총액-평균(표준편차) | 1,133.25 (3361.88) | 1,236.82 (3459.17) | 1,052.55 (3283.36) | |
| | 경제적 어려움 있는 가계 | 960 (48.22) | 501 (57.45) | 459 (41.02) | |
| 남 성 가장의 직 업 | 관리 및 전문직 | 149 (7.48) | 40 (4.59) | 109 (9.74) |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232 (11.65) | 102 (11.70) | 130 (11.62) | |
| | 사무직 | 192 (9.64) | 85 (9.75) | 107 (9.56) | |
| | 판매 및 서비스직 | 182 (9.14) | 77 (8.83) | 105 (9.38) | |
| | 기능 및 노무직 | 660 (33.15) | 285 (32.68) | 375 (43.51) | |
| 남성가장의 종사상의 지 위 | 정규직 임금근로 | 812 (40.78) | 325 (37.27) | 487 (43.52) | |
| | 비정규직 임금 근로 | 149 (7.48) | 72 (8.26) | 77 (6.88) | |
| | 자영자-종업원 있음 | 161 (8.09) | 54 (6.19) | 107 (9.56) | |
| | 자영자-종업원 없음 | 293 (14.72) | 138 (15.83) | 155 (13.85) | |
| 남 성 가장의 학 력 | 중학교 이하 | 504 (25.31) | 237 (27.18) | 267 (23.86) | |
| | 고등학교 이하 | 732 (36.77) | 319 (36.58) | 413 (36.91) | |
| | 전문대 | 118 (5.93) | 51 (5.85) | 67 (5.99) | |
| | 대학교 이상 | 475 (24.32) | 171 (19.61) | 304 (27.17) | |
| 거주지역 | 서 울 | 575 (28.88) | 241 (27.64) | 334 (29.85) | |
| | 경 기 | 662 (33.25) | 295 (33.83) | 367 (32.80) | |
| | 광역시 | 328 (16.47) | 135 (15.48) | 193 (17.25) | |
| | 지방도시 및 군부 | 426 (21.40) | 201 (23.05) | 225 (20.11) | |

〈표 5〉의 계속

| | | 전 체 |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 |
|--------------------------------|-------------|----------------|------------------------|------------------|
| 희망 근로시간 | 시간제 | - | 516 (59.17) | - |
| | 전일제 | - | 356 (40.83) | - |
| 취업경험 | 있음 | 1478 (74.23) | 734 (84.17) | 744 (66.49) |
| 이전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68 (3.42) | 25 (2.87) | 43 (3.84)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170 (8.54) | 87 (9.98) | 83 (7.42) |
| | 사무직 | 458 (23.00) | 186 (21.33) | 272 (23.31) |
| | 판매 및 서비스직 | 398 (19.99) | 237 (27.18) | 161 (14.39) |
| | 기능 및 노무직 | 384 (19.29) | 199 (22.82) | 185 (16.53) |
| 이전 직업 종사상의 지 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967 (48.57) | 434 (49.77) | 533 (47.63) |
| | 정규직 임금 근로자 | 309 (15.52) | 200 (22.94) | 109 (9.74)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54 (2.71) | 27 (3.10) | 27 (2.41) |
| |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79 (3.97) | 44 (5.05) | 35 (3.13) |
| | 무급가족종사자 | 69 (3.47) | 29 (3.33) | 40 (3.57) |
| 경력연수-평균(표준편차) | | 4.68 (5.84) | 48.96 (49.54) | 4.11 (5.71) |
| 이전 직업 임금 및 보수-평균(표준편차) (만원) | | 42.83 (57.37) | 48.96 (49.54) | 38.05 (62.41) |

가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나 (조)모친 동거 여부의 가계생산과 관련된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의중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의중임금의 추정에 포함된 변수와 표본 특성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여성의 미취업 상태의 결정요인 분석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의 추정값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는 미취업 상태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여 본래적인 미취업으로 (임의로) 명명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미취업 상태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임의로) 파생적인 미취업으로 명명하였다.

미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인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는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하고자 하지만 구직을 중단하거나 단념한 여성들과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여성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가 있는 실망실업자(또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구분된다. 구직자의 판별 기준이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혹은 지난 1개월 동안 구직 여부이어서 취업의사가 있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

〈표 6〉 취업의사유무 및 본래적/비자발 상태별 표본특성: 평균(SD)

(단위: %)

| 표 본 수 | | 본래적/취업 의사 없음 | 파생적/취업의 사 없음 | 본래적/취업 의사 있음 | 파생적/취업의 사 있음 |
|-------------------------|-------------|-----------------|-----------------|-----------------|-----------------|
| | | 561 | 314 | 118 | 108 |
| 학 력 | 중학교 이하 | 74 (13.19) | 35 (11.15) | 21 (17.80) | 8 (7.41) |
| | 고등학교 | 339 (60.43) | 175 (55.73) | 60 (50.85) | 61 (56.48) |
| | 전문대 | 84 (14.97) | 34 (10.83) | 25 (21.19) | 21 (19.44) |
| | 대학교 이상 | 64 (11.41) | 70 (22.29) | 12 (10.17) | 18 (16.67) |
| 전 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 인문과학 | 41 (31.06) | 33 (34.74) | 11 (31.43) | 12 (36.36) |
| | 사회과학 | 11 (8.33) | 19 (20.00) | 2 (5.71) | 9 (27.27) |
| | 이공계열 | 26 (19.70) | 35 (36.84) | 3 (8.57) | 10 (30.30) |
| | 예체능 및 기타 계열 | 34 (25.76) | 3 (3.16) | 11 (31.43) | - |
| | 의학계열 | 9 (6.82) | 4 (4.21) | 3 (8.57) | 1 (3.03) |
| | 교육계열 | 11 (8.33) | 1 (1.05) | 5 (14.29) | 1 (3.03) |
| 연 령 | 세 | 33.6 (6.3) | 33.2 (6.1) | 33.7 (7.1) | 30.9 (7.4) |
| 거주지역 | 서울 | 123 (21.93) | 76 (24.20) | 20 (16.95) | 21 (19.44) |
| | 경기 | 184 (32.80) | 82 (26.11) | 55 (46.61) | 35 (32.41) |
| | 광역시 | 111 (19.79) | 69 (21.97) | 22 (18.64) | 21 (19.44) |
| | 지방도시 및 군부 | 143 (25.49) | 87 (27.21) | 21 (17.80) | 31 (28.70) |
| 결혼상태 | 미혼자 | 42 (7.49) | 48 (15.29) | 25 (21.19) | 47 (43.52) |
| | 기혼 유배우자 | 510 (90.91) | 264 (84.08) | 89 (75.42) | 60 (55.56) |
| | 기혼 무배우자 | 9 (1.60) | 2 (0.64) | 4 (3.39) | 1 (0.93) |
| 가구원 수 | 명 | 3.9 (1.0) | 4.0 (1.1) | 3.8 (1.0) | 4.2 (1.1) |
| 중고등학생 자녀 | 있음 | 122 (21.75) | 68 (21.66) | 28 (23.73) | 26 (24.07) |
| 초등학생 자녀 | 있음 | 156 (27.81) | 160 (50.96) | 23 (19.49) | 45 (41.67) |
| 6세미만 자녀 | 있음 | 295 (52.58) | 132 (42.04) | 33 (27.97) | 23 (21.30) |
| (조)부모/모친동거 | 동거함 | 16 (2.85) | 32 (1019) | 8 (6.78) | 9 (8.33) |
| 가계소득 | 만원 | 241.1 (228.1) | 200.5 (185.6) | 197.1 (110.1) | 165.0 (130.8) |
| 순 자산 | 만원 | 12589 (18286) | 10012 (13325) | 6431 (25131) | 8690 (11086) |
| 경제적 어려움 | 있음 | 274 (48.84) | 178 (56.69) | 65 (55.08) | 68 (62.96) |
| 자격증 있음 | 있음 | 96 (17.11) | 89 (28.34) | 17 (14.41) | 32 (29.63) |
| 직업훈련 받음 | 있음 | 52 (9.27) | 65 (20.70) | 16 (13.56) | 29 (26.85) |
| 직장경력 | 있음 | 456 (81.28) | 266 (84.71) | 102 (86.44) | 84 (77.78) |
| 전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33 (7.76) | 7 (2.87) | 6 (6.00) | 1 (1.32)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66 (15.53) | 12 (4.92) | 18 (18.00) | 2 (2.63) |
| | 사무직 | 118 (27.76) | 126 (51.64) | 18 (18.00) | 44 (57.89) |
| | 판매 및 서비스직 | 139 (32.71) | 34 (13.93) | 39 (39.00) | 11 (14.47) |
| | 기능 및 노무직 | 69(16.24) | 65 (26.64) | 19 (19.00) | 18 (23.68) |
| 전 직업 종사상 지위 | 비규직 임금근로자 | 286 (62.86) | 209 (78.57) | 53 (51.96) | 61 (72.62) |
|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107 (23.52) | 32 (12.03) | 33 (32.35) | 15 (17.86)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13 (2.86) | 3 (1.13) | 3 (2.94) | 1 (1.19) |
| |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27 (5.93) | 5 (1.88) | 12 (11.76) | 2 (2.38) |
| | 무급가족종사자 | 22 (4.84) | 17 (6.39) | 1 (0.98) | 5 (5.95) |
| 전직장 임금/보수 | 만원 | 61.7 (58.2) | 57.9 (43.6) | 67.1 (38.1) | 63.5 (36.7) |
| 남성 가장의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46 (8.95) | 28 (9.76) | 6 (5.71) | 5 (5.56)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78 (15.18) | 55 (19.16) | 12 (11.43) | 7 (7.78) |
| | 사무직 | 68 (13.23) | 23 (8.01) | 8 (7.62) | 4 (4.44) |
| | 판매 및 서비스직 | 72 (14.01) | 23 (8.01) | 10 (9.52) | 15 (16.67) |
| | 기능 및 노무직 | 218 (42.41) | 129 (44.95) | 57 (54.29) | 43 (47.78) |
| | 기 타 | 32 (6.23) | 29 (10.10) | 12 (11.43) | 16 (17.78) |
| 남성 가장 학력 | 중학교 이하 | 85 (16.19) | 43 (14.93) | 24 (22.43) | 20 (22.22) |
| | 고등학교 이하 | 242 (46.10) | 126 (43.75) | 45 (42.06) | 43 (47.78) |
| | 전문대 | 58 (11.05) | 32 (11.11) | 13 (12.15) | 9 (10.00) |
| | 대학교 이상 | 140 (26.67) | 87 (30.21) | 25 (23.36) | 18 (20.00) |

경제활동인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취업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구직자와 미취업 상태가 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여성을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상태이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로 한 범주로 하고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미취업자를 다른 한 범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미취업 상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취업의사가 있는 본래적인 미취업자, ② 취업의사가 없는 본래적인 미취업자, ③ 취업의사가 있는 파생적인 미취업자, ④ 취업의사가 없는 파생적인 미취업자.

이러한 미취업 상태가 미취업 여성의 개인 특성 및 가계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하였다. 다범주 로짓분석에 대해 아직까지 패널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최근 자료인 2002년 5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표본의 특성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IV. 분석 결과

1. 여성의 취업 및 미취업 현황 및 추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정규교육을 마친 2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중 취업자가 56%, 미취업자가 44%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대다수(약 79%)는 취업의사

<표 7>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구직자 | 345(9.78) | 131(4.25) | 94(3.38) | 73(2.74) | 71(2.82) |
| 비경활-취업의사 있음 | 531(15.06) | 212(6.89) | 222(7.98) | 223(8.36) | 161(6.40) |
| 비경활-취업의사 없음 | 986(27.96) | 1,142(37.09) | 1,016(36.53) | 930(34.90) | 863(34.31) |
| 취업자 | 1,664(47.19) | 1,594(51.77) | 1,449(52.10) | 1,439(54.00) | 1,420(56.46) |
| 전 체 | 3,526(100.00) | 3,079(100.00) | 2,781(100.00) | 2,665(100.00) | 2,515(100.00) |

가 없는 미취업자들이다. 취업 대기상태에 있는 구직자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을 모두 고려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20~44세 연령대 여성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2002년 현재 9%대에 달하여 공식적인 경제활동 통계에 나타난 결과, 약 1.4%(통계청, 2003)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 결과

의중임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가 <표 8>에, 시장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회귀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추정회귀계수에 여성 개인의 특성과 가계 특성을 대입하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나타나 있다.

추정된 의중임금 회귀모형으로부터 산출한 의중임금은 1998년에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의 경우 월평균 87만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관측값 85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³⁾.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은 이보다 낮아서 약 83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의중임금의 추정값은 다른 연도에 비해 1998년에 월 85만원으로 추정되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연도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지만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여서 안정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의중임금 평균값은 91만원으로 나타났다.

임금 회귀모형에 의해 산출된 임금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을 비교하면 추정값은 연도에 따른 변동을 오차항을 통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관측값에 비해 연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나타났다. 2001년까지 미취업자의 임금 추정값이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이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저기능·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최강식 외, 1997; 금재호, 2000)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표본의 특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학력이 점차로 높아져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자의 경력 연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격증 보유자와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취업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추정값은 희망근로시간을 전일제로 가정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관측값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작용할 수 있다.

〈표 8〉 미취업 여성의 의증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Sample Selection)-회귀계수(SE)

| 구 분 | | 구직 또는 취업의사 유무에 대한 프로빗분석 | 의증임금 회귀분석 |
|---------------------|--------------|--|-------------------------------------|
| 상 수 항 | | -1.00 (0.55)* | 2.80 (0.28)*** |
| 학 력 중학교 미만 | 고등학교 이하 | 0.27E-1 (0.83E-1) | 0.37E-1 (0.39E-1) |
| | 전문대 | -1.03 (0.61)* | - |
| | 대학교 이상 | -1.20 (0.61)** | - |
| 전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 인문과학 | 1.39 (0.61)** | 0.18 (0.74E-1)** |
| | 사회과학 | 1.46 (0.62)** | 0.13 (0.81E-1)* |
| | 이공계열 | 1.35 (0.62)** | 0.14 (0.88E-1) |
| | 의학계열 | 1.81 (0.67)** | 0.23 (0.13)* |
| | 예체능 및 기타 계열 | 1.39 (0.63)** | 0.29 (0.88E-1)*** |
| | 교육계열 | 1.45 (0.65)** | 0.31 (0.11)** |
| 연 령 | 세 | 0.48E-1 (0.29E-1)* | 0.76E-1 (0.14E-1)*** |
| 연령제곱 | 세 | -0.77E-3 (0.35E-1)** | -0.10E-2 (0.17E-3)*** |
| 거주지역 지방도시 및 군부 | 서울 | -0.64E-1 (0.80E-1) | 0.12 (0.38E-1)*** |
| | 경기 | -0.13 (0.89E-1) | 0.54E-1 (0.42E-1) |
| | 광역시 | -0.10 (0.76E-1) | 0.23E-2 (0.35E-1) |
| 결혼상태 | 기혼 유배우자 | -0.64 (0.15)** | -0.92E-1 (0.71E-1) |
| 미혼자 | 기혼 무배우자 | -0.33 (0.20)* | -0.51E-1 (0.85E-1) |
| 가구원수 | 명 | 0.27E-1 (0.29E-1) | -0.85E-2 (0.13E-1) |
| 중고등학생 자녀 | 있음 | 0.12 (0.78E-1)* | -0.19E-1 (0.35E-1) |
| 초등학생 자녀 | 있음 | 0.53E-1 (0.71E-1) | -0.11 (0.34E-1)*** |
| 6세미만 자녀 | 있음 | -0.58 (0.84E-1)** | -0.90E-1 (0.49E-1)*** |
| (조) 부모/모친동거 | | -0.96E-1 (0.10) | -0.11 (0.50E-1)** |
| 가계소득 | log(소득) | -0.18E-1 (0.23E-1) | -0.20E-4 (0.29E-4) |
| 부채총액 | log(부채) | 0.36E-1 (0.76E-2)*** | 0.11E-4 (0.38E-5)*** |
| 주택 가치 | log(주택가치) | 0.24E-1 (0.11E-1)** | 0.45E-5 (0.22E-5)** |
| 경제적 어려움 | 있음 | 0.35 (0.58)*** | - |
| 직장경력 | 있음 | 0.73 (0.12)*** | - |
| 희망근로시간 | 전일제 | - | 0.57E-1 (0.28E-1)* |
| 전직장 임금/보수 | 만원 | - | 0.88E-3 (0.31E-1)*** |
| 전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 | 0.30 (0.93E-1)*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 | 0.18 (0.59E-1)** |
| | 사무직 | - | 0.77E-1 (0.47E-1) |
| | 판매 및 서비스직 | - | 0.15 (0.44E-1)** |
| | 기능 및 노무직 | - | 0.33E-1 (0.47E-1) |
| 전 직업 종사상 지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0.18 (0.11) | -0.93E-1 (0.42E-1)** |
|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0.25 (0.12)** | -0.54E-1 (0.54E-1) |
| | 자영업자-피고용자 있음 | -0.39E-1 (0.20) | 0.13 (0.89E-1) |
| 남 성 가장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0.30 (0.15)** | 0.10 (0.79E-1)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0.11 (0.11) | 0.72E-2 (0.53E-1) |
| | 사무직 | 0.10(0.12) | 0.12 (0.58E-1)** |
| | 판매 및 서비스직 | 0.78E-1 (0.11) | -0.88E-1 (0.53E-1)* |
| | 기능 및 노무직 | -0.36E-1 (0.82E-1) | -0.28E-1 (0.39E-1) |
| 남성 가장 종사상 지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0.57E-1 (0.80E-1) | -0.80E-1 (0.38E-1)** |
|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0.13 (0.12) | -0.61E-1 (0.56E-1) |
| | 자영업자-피고용자 있음 | -0.33 (0.12)*** | -1.00E-1 (0.64E-1) |
| 남성 가장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0.17E-1 (0.79E-1) | 0.27E-1 (0.36E-1) |
| | 전문대 | 0.19 (0.14) | -0.15E-1 (0.63E-1) |
| | 대학교 이상 | -0.13 (0.11) | 0.22E-1 (0.55E-1) |
| Lamda | | - | 0.14 (0.82E-1)* |
| 모델테스트 | | Log likelihood -1424.18 x ² =463.49*** | F=5.68*** R ² =20.32% |

주: * P<0.1, ** P<0.05, *** P<0.01.

〈표 9〉 시장임금 추정 회귀분석 결과(Sample Selection)-회귀계수(SE)

| | | 취업여부 프로빗 분석 | 시장임금 회귀분석 |
|-------------------------|---|----------------------|--------------------------------------|
| 상 수 | | 0.53 (0.88) | 3.77 (0.28)*** |
| 연 령 | | 0.11 (0.54E-1)** | -0.96E-2 (0.18E-1) |
| 연령제곱 | | -0.11E-2 (0.80E-3) | 0.23E-3 (0.26E-3) |
| 학 령 vs 중학교 미만 | 고등학교 이하 | -0.57 (0.99E-1)*** | 0.16 (0.41E-1)*** |
| | 전문대 | - | 0.19 (0.69E-1)*** |
| | 대학교 이상 | - | 0.34 (0.68E-1)*** |
| 전 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 인문과학 | -0.20 (0.13) | 0.63E-1 (0.50E-1) |
| | 사회과학 | -0.71E-1 (0.16) | 0.15E-1 (0.56E-1) |
| | 이공계열 | -0.17 (0.16) | 0.39E-1 (0.53E-1) |
| | 의학계열 | 0.81 (0.25)*** | 0.15 (0.72E-1)** |
| | 예체능계열 | -0.63E-1 (0.17) | 0.12E-1 (0.57E-1) |
| | 교육계열 | 0.28 (0.20) | -0.15E-1 (0.61E-1) |
| 결혼상태 vs 미혼자 | 기혼 유배우자 | -1.20 (0.12)*** | 0.14 (0.41E-1)*** |
| | 기혼 무배우자 | -1.16 (0.21)*** | -0.70 (0.61E-1) |
| 가족상황 | 가구원 수 | 0.68E-1 (0.31E-1)*** | - |
| |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 0.27 (0.71E-1)*** | - |
| | 초등학생 자녀 있음 | -0.98E-1 (0.74E-1) | - |
| | 6세 미만 자녀 있음 | -0.68 (0.75E-1)*** | - |
| | (조)부모/모친 동거 | 0.40 (0.13)*** | - |
| 가족소득 | 본인소득 제외 | -0.38 (0.16E-1)*** | - |
| 거주지역 vs 지방도시 및 군부 | 서울 | -0.63E-1 (0.11) | 0.13 (0.41E-1)*** |
| | 경기 | 0.16E-1 (0.11)* | 0.88E-1 (0.44E-1)** |
| | 광역시 | -0.16 (0.10) | 0.54E-2 (0.39E-1) |
| 직업훈련 | 받음 | - | 0.70E-1 (0.26E-1)*** |
| 자격 중 | 있음 | - | 0.64E-1 (0.34E-1)* |
| 직 업 vs 판매 및 서비스직 | 관리 및 전문직 | - | 0.13E-1 (0.42E-1)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 | 0.48E-1 (0.36E-1) |
| | 사무직 | - | 0.47E-1 (0.34E-1) |
| | 기능 및 노무직 | - | -0.23 (0.29E-1)*** |
| 종사상 지위 vs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정규직 임금근로자 | - | 0.26 (0.23E-1)***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 | 0.52 (0.47E-1)*** |
| |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 | 0.24 (0.37E-1)*** |
| 경력연수 | 년 | - | 0.42E-1 (0.78E-2)*** |
| 경력연수제곱 | | - | -0.12E-2 (0.39E-3)*** |
| 근로시간 | 전일제 | - | 0.62E-1 (0.16E-1)*** |
| 연도 vs 1999 | 2000 | 0.80E-2 (0.58E-1) | |
| | 2001 | 0.91E-1 (0.55E-1)** | |
| | 2002 | 0.24 (0.54E-1)*** | |
| Rho | | 0.79 (0.11E-1)*** | |
| Lambda | | | -0.22 (0.22E-1)*** |
| VAr(e) | | | 0.88D-1 |
| Var(c) | | | 0.45 |
| Var(v) | | | 0.10D-1 |
| 모델테스트 | Log likelihood -5282.30 $\chi^2=2468.14$ *** | | F=76.21*** R ² =33.72% |

주: * P<0.1, ** P<0.05, *** P<0.01.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치 모두 연도가 흐름에 따라 매우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추정되어 미취업 여성의 가계에서의 생산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미취업자를 분류하였다.

〈표 10〉 의중임금 관측값과 추정값-평균(SD)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
| | 표본수 | 만원 | 표본수 | 만원 | 표본수 | 만원 | 표본수 | 만원 | 표본수 | 만원 |
| 구직자-관측값 | 280 | 81(42) | 113 | 83(54) | 83 | 89(62) | 67 | 94(84) | 69 | 126(213) |
|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관측값 | 423 | 87(54) | 183 | - | 208 | - | 199 | - | 160 | - |
| 구직자-추정값 ¹⁾ | 280 | 86(19) | 113 | 84(17) | 83 | 85(17) | 67 | 86(21) | 69 | 89(21) |
|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추정값 | 423 | 87(20) | 183 | 89(18) | 208 | 89(17) | 199 | 90(24) | 160 | 91(23) |
| 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추정값 | 731 | 83(21) | 1003 | 90(22) | 929 | 89(22) | 872 | 90(25) | 888 | 91(24) |
| 전체-추정값 | 1434 | 85(20) | 1299 | 89(22) | 1220 | 89(20) | 1138 | 90(24) | 1117 | 91(23) |

주: 1) 추정값은 회망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하여 산출함.

2) 2000년 기준 물가지수로 조정함.

〈표 11〉 시장임금 관측값과 추정값- 평균(SD)¹⁾

(단위: 만원)

| | 1999 | 2000 | 2001 | 2002 |
|--------------------|--------|--------|--------|---------|
| 취업자-관측값 | 68(54) | 74(65) | 87(81) | 101(74) |
| 취업자-추정값 | 74(23) | 79(24) | 83(25) | 87(25) |
| 미취업자-추정값 | 84(17) | 84(17) | 85(17) | 86(17) |
| 여성임금 ²⁾ | 83 | 89 | 95 | 104 |

주: 1) 2000년 기준 물가지수로 조정함.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3. 본래적 미취업자와 파생적 미취업자 분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것이 노동공급에 대한 경제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일치하므로 본래적 미취업이라 하기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반하는 경우로서 파생적 미취업이라고 하기로 한다. 추정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근거로 미취업자를 본래적 미취업자와 파생적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표 12)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 60%는 본래적 미취업자, 약 40%는 파생적 미취업자로 나타났다.

본래적 미취업자와 파생적 미취업자를 구직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와 일자리가 있더라도 취업하지 않을 미취업자로 다시 구분하여 미취업 여성을 네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표 13). 미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는 의중임금이 기대시장임금보다 큰 본래적 미취업자이면서 취업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의중임금보다 시장임금이 높은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미취업자들이다. 기대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고 취업의사가 있어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성은 10% 내외로 나타났다. 기대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은 전체 미취업 여성의 30%에 육박한다. 의중임금이 기대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도 10% 내외에 달한다.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약 20% 내외의 미취업 여성에게 적절한 일자리의 제공이, 취업의사가 없는 파생적 미취업 여성에게 여성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통하여 취업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네 가

〈표 12〉 연도별 본래적 미취업자와 파생적 미취업자

(단위: %)

| | 1999 | 2000 | 2001 | 2002 |
|-----|------------|------------|------------|------------|
| 본래적 | 803(61.82) | 758(62.13) | 707(62.13) | 679(61.67) |
| 파생적 | 496(38.18) | 762(37.87) | 431(37.87) | 422(38.33) |
| 전 체 | 1,299(100) | 1,220(100) | 1,138(100) | 1,101(100) |

〈표 13〉 본래적 미취업자와 파생적 미취업자의 구직 및 취업의사 여부에 따른 미취업 여성 분포

(단위: %)

| | 전 체 | 본래적/취업의사 없음 | 파생적/취업의사 없음 | 본래적/취업의사 있음 | 파생적/취업의사 있음 |
|------|------------|----------------|----------------|----------------|----------------|
| 1999 | 1,299(100) | 639(49.19) | 364(28.02) | 164(12.63) | 132(10.16) |
| 2000 | 1,220(100) | 607(49.75) | 322(26.39) | 151(12.38) | 140(11.48) |
| 2001 | 1,138(100) | 564(49.56) | 308(27.07) | 143(12.57) | 123(10.81) |
| 2002 | 1,101(100) | 561(50.95) | 314(28.52) | 118(10.72) | 108(9.81) |

지 미취업 유형과 관련된 개인 및 가계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유형의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여성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본래적이며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multinomial logit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4>에 나타나 있다.

학력효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의 미취업 여성에 비해 고등학교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취업 여성은 파생적 미취업자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특히 전문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여성은 중학교 이하 학력 여성에 비해 파생적/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전공도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이공계열, 의학계열 전공자는 파생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육계열 전공자는 본래적/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교육계열 전공자는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과학 전공은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은 지방 도시 거주자에 비해 의중임금이 기대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도 본래적/파생적 미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본래적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파생적인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반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은 미취업이 본래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조)부모 또는 (조)모친과 동거하는 여성의 미취업은 파생적이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효과도 세 범주에 대해 모두 음(-)의 부호로 나타나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파생적이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주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미취업이 파생적인 경향이 있지만 취업의사 무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미취업 여성은 미취업이 파생적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이전에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경우 미취업이 본래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사무직이나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했던 여성은 미취업이 파생적이고 취업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이전에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했던 여성은 파생적 미취업일 확률은 유의하게 높지만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한 여성은 본래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나 보수가 높을수록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남성 가장의 직업이 준전문직이거나 기술적인 경우 가계에 남성 가장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파생적이고 취업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 남성 가장의 직업이 사무적인 경우 미취업이 파생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로짓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본래적/취업의사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변수 다음 열)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공통으로 취업의사가 없지만 미취업이 본래적인지 아니면 파생적인지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 수 있다.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낸 특성을 가진 여성은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커서 미취업 상태가 본래적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고, 회귀계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여성은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커서 시장에 이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노동시장 진입이 보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파생적 미취업 여성의 특성을 정리하면 ① 학력이 높고 ②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전공은 사회과학이나 이공계열이며 ③ 미혼 ④ 초등학교 자녀가 있고 ⑤ 부모 혹은 모친과 동거 ⑥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⑦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았고 ⑧ 이전에 사무직 또는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 ⑨ 이전에 정규직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다. 반대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아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여성의 특징은 ① 학력이 중학교 이하로 낮거나 전문대 이상 학력자인 경우는 전공이 교육계열이거나 예체능·기타 ② 기혼자 ③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④ 가계소득이 높으며 ⑤ 이전 직업이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⑥ 이전에 비정규직 근로 경험이 있거나 ⑦ 남성 가장의 직업이 사무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는 비교 범주가 공통으로 본래적 미취업인 경우로서 취업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려준다. 전공이 교육계열이거나 광역시

<표 14> 미취업 상태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vs. 본래적/취업의사 없음)-회귀계수(SE)

| | | 파생적/ 취업의사없음 | 본래적/취업의사있음 | 파생적/취업의사있음 |
|------------------------|--|--------------------|--------------------|---------------------|
| 상 수 | | 9.05 (3.23)*** | 0.78 (3.49) | 14.75 (4.15)*** |
| 학력 중학교 미만 | 고등학교 | 0.74 (0.35)** | 0.22 (0.28) | 1.34 (0.52)*** |
| | 전문대 | 0.69 (0.66) | 0.13 (0.79) | 2.45 (0.88)*** |
| | 대학교 이상 | 3.34 (0.68)*** | -0.52(0.85) | 4.17 (0.93)*** |
| 전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 인문과학 | 0.15 (0.59) | 0.85 (0.75) | -0.78E-1 (0.77) |
| | 사회과학 | 1.52 (0.70)** | 0.70 (1.02) | 1.43 (0.89) |
| | 이공계열 | 1.34 (0.61)** | -0.11 (0.92) | 0.45E-1 (0.82) |
| | 예체능 및 기타 계열 | -2.83 (0.92)*** | 0.64 (0.78) | -33.35 (1045271.8) |
| | 의학계열 | 1.43 (0.96) | 1.49 (1.03) | 0.54 (1.51) |
| | 교육계열 | -2.66 (1.37)** | 1.54 (0.92)* | -2.16 (1.62) |
| 연 령 | 세 | -0.36 (0.20)* | -0.37E-1 (0.21) | -0.76 (0.26)*** |
| 연령제곱 | 세 | 0.51E-2 (0.30E-2)* | 0.66E-3 (0.31E-2) | 0.11E-1(0.40E-2)*** |
| 거주지역 지방도시 및 군부 | 서울 | 0.24 (0.28) | -0.36E-1 (0.26) | -0.22 (0.42) |
| | 경기 | 0.38 (0.28) | 0.48 (0.36) | 0.52 (0.40) |
| | 광역시 | -0.34 (0.26) | 0.68 (0.30)** | -0.19 (0.36) |
| 결혼상태 | 기혼 유배우자 | -1.24 (0.45)*** | -0.75 (0.50) | -2.50 (0.60)*** |
| 미혼자 | 기혼 무배우자 | -4.58 (1.25)*** | -0.74 (0.88) | -4.31 (1.46)*** |
| 가구원수 | 명 | -0.19E-1 (0.12) | -0.28E-1 (0.13) | 0.16 (0.16) |
| 중고등학생 자녀 | 있음 | 0.95E-1 (0.31) | -0.85E-1 (0.33) | 0.69 (0.43) |
| 초등학생 자녀 | 있음 | 2.17 (0.27)*** | -0.45 (0.33) | 2.59 (0.40)*** |
| 6세미만 자녀 | 있음 | -0.67 (0.27)** | -0.97 (0.36)*** | -1.05 (0.42)*** |
| (조) 부모/모친동거 | | 2.57 (0.47)*** | 0.97 (0.53)* | 1.91 (0.63)*** |
| 가계소득 | log(소득) | -1.09 (0.14)*** | -0.36 (0.16)** | -1.19 (0.16)*** |
| 순자산 | log(순자산) | 0.34E-1 (0.41E-1) | -0.15E-1 (0.43E-1) | -0.24E-1 (0.54E-1) |
| 경제적 어려움 | 있음 | 0.42 (0.20)** | 0.22 (0.22) | 0.66 (0.33)** |
| 자격증 있음 | | 1.16 (0.24)*** | -0.35 (0.34) | 1.46 (0.38)*** |
| 직업훈련 받음 | | 1.89 (0.30)*** | 0.34 (0.35) | 2.51 (0.27)*** |
| 전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3.82 (0.75)*** | -0.41 (0.69) | -6.09 (1.40)***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3.02 (0.54)*** | 0.86E-2 (0.54) | -4.50 (0.98)*** |
| | 사무직 | 0.71 (0.33)** | 0.16E-1 (0.48) | 0.30 (0.50) |
| | 판매 및 서비스직 | -1.34 (0.38)*** | -0.29E-1 (0.44) | -2.49 (0.60)*** |
| | 기능 및 노무직 | 1.30 (0.35)*** | 0.52 (0.48) | 0.74 (0.53) |
| 전 직업 종사상 지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0.96 (0.48)** | -0.92 (0.41)** | 0.21E-1 (0.70) |
|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1.00 (0.52)** | -0.46 (0.42) | -1.45 (0.74)**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0.99 (1.29) | -0.37 (0.80) | -1.01 (1.62) |
| 전직장 임금/보수(만원) | | -0.26E-1 (0.12) | 0.31 (0.11)*** | 0.35 (0.17)** |
| 남성 가장의 직업 | 관리 및 전문직 | 0.48 (0.49) | -0.47 (0.62) | -0.17 (0.73) |
| | 준전문직 및 기술직 | 0.88E-1 (0.42) | -0.41 (0.49) | -1.11 (0.65)* |
| | 사무직 | -1.34 (0.48)*** | -0.76 (0.55) | -2.11 (0.74)*** |
| | 판매 및 서비스직 | -0.63 (0.44) | -0.44 (0.48) | -0.18 (0.56) |
| | 기능 및 노무직 | 0.52 (0.32) | 0.27 (0.35) | -0.27 (0.42) |
| 남성 가장 학력 | 고등학교 이하 | -0.30E-1 (0.29) | 0.23 (0.33) | 0.20 (0.39) |
| | 전문대 | 0.47 (0.42) | 0.63 (0.48) | 0.87 (0.60) |
| | 대학교 이상 | 0.45E-1 (0.39) | 0.64 (0.44) | 0.27 (0.56) |
| 모델테스트 | Log likelihood=-870.19, Pseudo-R-squared=32.36% x ² =832.58*** | | | |

주: * P<0.1, ** P<0.05, *** P<0.01.

에 거주하며, (조)부모나 (조)모친과 동거하는 여성,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임금 및 보수가 높을수록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의사가 없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의중임금이 높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과 대비하여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으면서 취업의사도 있어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취업 여성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미혼자이다. 기혼자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만큼 성장하였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드물며 가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부모나 모친과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 가계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취업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여성들이다. 이전에 전문직 및 관리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여성은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V. 요약 및 결론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추정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나타나, 미취업은 가계생산과 시장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추정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하여 이 두 집단의 규모를 보면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60%, 파생적 미취업자는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약 절반 정도는 본래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약 10%는 본래적/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 약 30%는 파생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약 10%는 파생적/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로 나타났다. 취업의사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미취업 여성의 규모는 20%에 불과하다. 취업의사가 없는 파생적 미취업자를 포함하면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실행으로 미취업자의 약 50% 정도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노동력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의사

가 없는 파생적인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위하여 시장임금이 의증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이 유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할 의사를 상실한 데 기인한 수요측 요인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육아와 가계생산의 대체가 아예 불가능하여 노동시장에 나올 수 없는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파생적 미취업자의 특성은 학력이 높거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서 노동시장에 유용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파생적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기능·저임금 직종보다 고학력 여성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활용정책과 노동수요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여성의 이전 직업이 미취업 여성의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도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전에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본래적이어서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이나 기술의 진부화가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다가 그만둔 여성은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기능의 여성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가치가 높은 전문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상태,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존재, 초등학생 자녀의 존재, 가사 조력자로 기여하는 (조)모친의 동거가 미취업 상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계생산 부담이 적은 여성은 취업 상태가 파생적이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직장 일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는 본래적 미취업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의사를 갖지 않도록 작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고학력 여성을 취업으로 유도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를 확장하는 정책은 양적인 공급의 확대만으로는 전문 여성인력의 노동력 활용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노동공급은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

다. 또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서 그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고학력자 중심의 여성 친화적인 직업 개발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야는 여성 친화적인 특성이 있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예를 들면 복지 및 정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여성인력을 준비시켜 배출하고 투입할 수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함께 여성고용의 활성화방안과 더불어 취업장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통합된 여성인력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관찰이 불가능한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한 값에 근거하여 도출한 것이다. 추정치의 사용에 따른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추정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는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용 자료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의중임금은 1998년 자료를 시장임금은 1999~2002년 자료를 적용하여 추정에 자료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추정값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은 이전 연도(의중임금은 1999년까지, 시장임금은 2000년까지)에는 추정값이 관측값보다 높고 이후부터는 반대로 추정값이 관측값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일치된 변화 추세를 보이는 한편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성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토대로 평균적인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결정적인 무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잠정적인 결론이며 향후 표본이나 시점을 달리한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고 검증되기를 기대하고, 향후 연구 결과의 분석에 하나의 비교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의 미취업 상태는 결혼과 출산, 자녀 성장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집단을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따라 세분하여 분석하여 결혼과 출산 이외의 보다 본질적인 노동력 특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 또한 세대간 여성 노동력 특성의 변화가 고찰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중기고용기본계획」. 2003, 10.
- 김성숙·박수미.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3.
- 김우영.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권 1호 (2003. 3): 67-101.
- 금재호. 『도시실업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7.
- _____. 「경제위기와 여성인력의 활성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경제학회 3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11, pp. 1-39.
- 김순미·김혜연.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권 1호 (1998. 1): 65-79.
- 김지경.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지경·조유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2호 (2001. 2): 15-24.
- 김혜연. 「기혼여성의 노동이동 가능성: 노동이동 의사와 영향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권 9호 (2000. 9): 143-157.
- 류재술·류기철. 「실업근로자의 성별 의중임금합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25권 2호 (2002. 6): 109-128.
- 문숙재·김순미·윤소영. 「취업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권 6호 (1996. 6): 99-112.
- 박수미.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권 2호 (2002. 4): 145-174.
- 방하남.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미국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학』 30집 봄호 (1996. 3): 93-124.
- 어수봉.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4.
- 장지연·호정화. 「여성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미취업기간 탈출률의 성별비

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집 4호 (2001. 8): 159-188.

조정문. 「결혼 후 여성의 취업단절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5권 1호 (1994. 4): 115-132.

최강식·정진화.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형상과 대책. 『산업관계연구』 7권 (1997. 6): 381-407.

방하남·안주엽·장지연·호정화·김현경·김우영.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II)-한국노동패널 2차(1999)년도 자료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황수경.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2.

_____.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여성 유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3권 4호 (2003. 12): 1-24.

Abbot, M., & Ashenfelter, O. "Labor Supply, Commodity Demand and the Allocation of Time." *Review of Economics Studies* 43 (135) (October 1976): 389-411.

Becker, G.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299) (September 1965): 493-517.

Blau, F. D., & Ferber, N. A.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New York: Prentice-Hall, 1986.

Kiefer, N. M., & Neumann, G. R. "An Empirical Job-search Model, with a Test of the Constant Reservation-Wage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 (February 1979): 89-107.

Killingsworth, M., & J. J. Heckman.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O.C. Ashenfelter & R. Layard (eds.), pp. 103-198, New York: North Holland, 1986.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2002.

abstract

Exploring Unemployed Women Labor Force-based on the Estimations of the Reservation and Market Wages

Seonglim Lee

Using the data from the KLIPS, this study categorizes unemployed women into the four mutually exclusive groups according to the two criteria (whether to have intention to work and the comparison of reservation and market wages), and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the status of the unemployment of women. Heckman's sample selection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t are applied for the estimation. The major results are: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women who do not have intention to work or whose reservation wages are greater than expected market wages is about 50%, and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women who have intention to work or whose reservation wages are less than expected market wages is about 50%; second, human capital, burden of child raising and household production,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variables related to work experience are found to be the factors affecting unemployment status of women.

Key words: Unemployed Women, Reservation Wage, Market Wage,
Causes of Nemployment